

해외의약뉴스

갑작스런 혈압 강하, 치매 위험 높일 수 있어

개요

지난 10월, *PLoS Medicine* 온라인판에 게재된 연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15%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진은 기립성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뇌 혈류를 감소시켜 뇌 기능장애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키워드

혈압, 치매,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어지럼증, 서있을 때 느끼는 쓰러질 듯한 느낌은 뇌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6,000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갑작스런 혈압 저하와 치매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졌으나, 그 원인과 영향까지는 입증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노인의학 전문의는 이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미네올라 윈드롭 대학병원의 노인외학과 전문의 열빙 고몰린은 “이 연구 결과는 뇌 혈류와 인지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켰다.”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메디컬센터의 알판 이크람과 프랭크 윌터스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거나 머리가 핑핑 도는 증상)이 있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4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의 장기적 위험성이 1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일시적인 뇌 혈류 감소 에피소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뇌 혈류 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기능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연구의 저자들은, 이와 같이 갑작스런 혈압 강하에 의한 “단기 에피소드”가 뇌에 저산소증을 일으켜 뇌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고몰린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관련성이 밝혀졌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치매가 발생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다.

고몰린에 따르면, 요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흥미롭지만, 기립성 저혈압을 치료하면 치매 발생 위험성을 감소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뉴욕 노스웰 헬스에서 노인의학 교육을 이끄는 지젤 울프-클라인 박사는, 이 연구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데 있어 고몰린의 견해에 동의했다.

울프-클라인 박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 낮은 기억 점수를 보이며, 특히 중년에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경우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혈압과 저혈압 모두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라고 부언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0월, *PLoS Medicine*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 원문정보 ■

https://medlineplus.gov/news/fullstory_161422.html